

2026.07.05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빼앗긴 땅에 언약의 축복은 다시 오는가
본문: 사사기 3장12-30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살기 위한 터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그리스도 약속을 통하여 세상 살리시는 구원의 복음이 담긴 땅이다. 창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축복의 땅을 말씀하신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세상 살릴 축복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리스도 언약과 세상 살릴 계획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왜 재앙을 당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후대들에게도 재앙을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것이 사사시대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이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것,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장에 이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응답의 말씀을 잡고 가야 한다.

<본론>

1.굳게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과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 그 속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나 복을 받은 자인지 모압과 연결된 한 예가 있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 요단 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백성들이 있었다. 모압 경계 지역에 있을 때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경 쓰이고 번민할 때 유명한 발람이라는 귀신 충만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다.**[민22:1-3]** 그러나 백성들을 저주 하지 못하고 3번의 축복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모압 왕이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며 번민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민23:8,23],[민24:9]**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축복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게 주신 복을 가지고 예물 드리면서 너와 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언약이다. **[신16:10-11]** 가나안 그 축복 속에 있는 너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자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유월절, 맥추절(칠칠절), 초막절 그 절기는 풍성한 축복을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날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다.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모압의 압제와 사사 에훗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저주를 해도 저주를 줄 수 없는 복 받은 백성들인데 오늘의 본문은 모압 왕에게 백성들이 시달리고 공물을 바치며 속국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번민하던 왕이었던 모압이 지금은 이 백성들에게 공물을 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감사 절기로 드려야 할 곡식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삿3:12]** 이스라엘의 저주를 막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공물을 바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삿2:10]**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다.**[삿21:25]** 자기의 생각,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시대의 우상을 따르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세상 것 따라가는 우상으로 재앙 받고 비참하게 되었다.**[렘2:3]** 이때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 사람은 공물 공납 책임자 인듯하다. 왕과 독대를 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 일을 통해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훗이다. 그러나 에훗은 이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비참함에 이르렀는지 통탄한 중심을 가진 자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삿3:15]** 비

참한 현실에 가슴 아파한 이 에훗을 준비시키신 것이다. 공물을 받는 특별한 이 위치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압 왕을 제거하여 모압이 굴복되고 80년 동안 평온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

3.다음 세대로 이어야 할 언약의 축복

▶하나님은 언약을 놓친 백성들이 끌려가 실패하는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에훗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가뭄기를 살릴 일꾼이 필요하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교훈을 얻고 회복을 해도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속 재앙이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웃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고 또 에훗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본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특징이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아왔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치는 백성들과 같이 힘을 잃어버리고 질탄 받고 언약을 뺏겨 버리고 이 세상에서 압제를 당하며 후대들의 미래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형편을 무덤덤하게 무뎌져 있을 때 이 형편을 보고 믿음으로 저항할 에훗 같은 자를 찾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다. 절기를 통해 주신 복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신 기념하는 명절에 언약을 지키길 원하신다.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설명하고 남겨주는 명절을 회복하고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올 여름에 헌신하며 만들어 가길 바란다.